

진도 여인들의 '세월' 씻김굿의 위무

국립남도국악원 20주년 정기공연
6월 14~15, 7월 25~26일
국악원 진악당서 '따님애기'
삶에 대한 숭고한 의지 담아

파도는 잠들 줄 모르고 점점 거세진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를 '흙 파도'는 점점 커져 결국 바다를 뒤집어 놓는다.

'생산신'마저 삼킨 뒤 잠잠해진 바다에서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여인들의 연대가 시작된다. 남편을 잃고 시란고난한 세월을 견뎌진 진도 여인들의 강인한 정신이 진도씻김굿에 실린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국악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정기공연 '따님애기'를 오는 6월 14~15일, 7월 25~26일 국악원 진악당에서 펼친다. (6월 14일 오후 7시, 15일 오후 3시에 열리며 7월 공연은 오후 7시 30분 진행)

이번 공연은 가신(家神) 신앙의 일종으로 제석신, 수명신 등 명칭으로 불려 온 '생산신'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진도 여인들의 강인한 생명력, 대를 이어가며 지속하는 삶에 대한 숭고한 의지 등을 담았다.

공연명 '따님애기'는 제석 곳판에서 연행되던 천신 제석을 여주인공의 이름에 따라 '제석님네 따님애기', '서장애기', '당금애기' 등으로 불려왔던 데서 착안했다. 총연출은 유희성 감독이며 작곡 및 지휘에 강상구, 예술감독은 노부영이 맡았다. 국악원 국악연주단 및 객원단원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바다', '땅', '섬' 등으로 구성된 총 3막의 시놉시스는 이복을 끈다. 1막은 천지 구분이 힘든 세상 속에서 물아치는 '흙 파도'가 생산신을 삼켜버린 모습을 극화한 '뒤집힌 바다' 대목으로 시작한다.

이어 풍어를 약속하던 바다가 개벽(開闢)한 모습을 보며 돌아오지 않는 이를 하릴없이 기다리는 '기다리는 여인들', 육지에 닿지 못한 바다 사내들의 노래 '오지 않는 닻배노래' 등이 각각 펼쳐질 예정이다.

고통받던 바다 여인들이 느끼는 애절한 마음을 가무악(歌舞樂)으로 형상화하는 2막 '땅'도 레퍼토리에 있다. '노동' 대목에서는 축복받은 땅을 가꾸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생산신의 위력을 그려



국립남도국악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정기공연 '따님애기'를 오는 6월 14~15일, 7월 25~26일 국악원 진악당에서 펼친다. 사진은 '따님애기'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낸다. '달을 머금은 여인들' 대목은 태풍이 들이닥친 땅에 드리운 혼돈, 밤이 되어서 조가비와 함께 달빛을 받는 여인의 형상을 아름답게 표현할 예정이다.

생산신(따님애기)과 저승신의 대립을 통해 '진주 속 여인'이 등장하는 3막 '섬'도 이어진다.

저승신에 의해 목숨을 잃는 여인들, 그리고 생산신(당금)에 의해 회복되는 여인들을 동시에 묘사하며 생사의 업이 하나라는 사실을 함의한다. 공연 중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따리는 '업'을 상징하며, 배우들은 전에 역동적으로 휘감기며 붉은 몸짓을 펼쳐낸다.

생과 죽음의 대결을 형상화한 '씻김 살풀이'도 있다. "진도 씻김굿의 독창적 기법과 움직임, 패러다임의 확장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연출 기법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살풀이를 통해 극중 죽음의 문턱을 넘어 저승신

을 만나는 '당금의 아기들'의 한을 위무한다. 당금이 저승신에게 애절한 부탁을 하자 저승신은 '뱃줄'을 상징하는 밧줄에 과거·미래의 카르마를 묶어 올려 보낸다.

이후 생산신이 저승신을 안아서 잠재우고, 당금이 두 신을 포개며 '생과 사는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끝으로 전설 속 시간을 견뎌내는 진주들의 이야기 '보배'가 대미를 장식한다.

국악원 기획공연담당 박장원 주무관은 "국악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이번 공연은 험난한 시간을 이겨 낸 진도의 문화유산 '따님애기 당금'을 소재로 펼쳐질 예정이다"며 "작중 등장하는 '진주'는 보배로운 섬 진도의 회복력을 상징하는데 '생'에 대한 숭고한 의지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고 했다.

무료 관람. 국악원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맑은 물 찾아 떠난 '삼총사의 대모험'

놀이패 '신명' 어린이 환경뮤지컬 다음달 6일 서빛마루문예회관



거북이가 육지에 올라와서 만난 '목포 갈매기'. 이들은 극중 함께 무등산으로 향한다. <놀이패 신명 제공>

남해바다 용왕이 중병에 걸리자 거북이는 무등산 토끼 갯을 찾으러 간다. 병의 원인은 '해양 쓰레기로 인한 바닷물 오염'. 이를 깨닫고 거북은 갈매기, 아기수달과 함께 삼총사를 결성해 모험을 떠난다.

삼총사는 우여곡절 끝에 무등산 장불재의 '맑은 샘골물'을 얻은 뒤 용왕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지역 마당극 전문 예술단체 놀이패 신명(대표 정찬일)이 오는 6월 6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삼총사의 대모험'을 펼친다. 어린이 환경뮤지컬인 이번 공연은 광주의 대표 문화자산 무등산과 광주전을 비롯해 판소리 '수궁가'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애니메이션 영상과 춤, 동요 등을 결합해 어린이 관객들의 눈높이를 맞췄다.

육지에 도착한 거북이가 본 풍경은 참극 그 자체

다. '늑조라떼'가 돼 몸살을 앓고 있는 영산강, 양동복개도로 아래 광주천의 모습이 보인다. 거북의 코에도 빨대가 꽂혀 숨쉬기 힘들어한다. 이종경, 소지원, 노은지, 김혜선 등 출연.

놀이패 신명은 무등산, 광주천 등 지역 자연유산과 정체성을 다루는 공연을 제작해 왔다. 이번 공연은 '2024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일환'으로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지원을 통해 상연한다.

신명 김도은은 "아이들이 광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창작한 연극을 감상하며 '아름다운 광주'를 마음껏 상상하길 바란다"며 "고전 작품과 환경보전의 의미를 접목한 이번 작품이 '환경 보호'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석 5000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소설가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화경 소설가 북토크, 다음달 7일 전남도교육청

본질적으로 예술가는 사유하는 존재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궁구한다. 예술 작품을 사유의 산물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예술가 가운데 특히 소설가는 머릿속에서 서사를 생각한다. 이야기가 막히지 않고 줄줄 풀려 나갈 때는 신명나게 글을 쓰지만, 어느 지점에서 막히면 잠을 자지 않고 서사의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 고민을 한다.

소설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는 북토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화경 소설가의 '소설가는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라는 북토크가 오는 6월 7일 전남도교육청 해남도서관(3층)에서 열린다.

이날 북토크에서 이 작가는 "소설가의 생각이 서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험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라며 "소설 뿐 아니라 시, 노래 등 다른 장르의 공연도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양희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남고 재학생의 시낭송, 해남도서관 시노래패의 '동행', 작가 북토크, 합창 순으로 펼쳐진다.



이화경 작가

한편 이 작가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전남대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오랜 기간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고 인도 캄파타 대학 언어학과에서도 인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지금까지 '수화', '나비를 태우는 강', '꿈-이야기 하나

로 세상을 희롱한 조선의 책 읽어주는 남자', '화투 치는 고양이' 등을 펴냈으며 제6회 현진건문학상, 제9회 포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거리예술의 진수를 보여주세요"

광주문화재단, 다음달 10~18일 작품 공모

'광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와 다시 마주하는 만남의 광장'에서 '어쩌다 마주친 ...'.

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거리축제 주제와 슬로건으로, 주제와 슬로건만 들어도 흥이 감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2024년 광주프린지페스티벌(9월 21일~22일) 무대에서 선

보일 국내 거리예술 작품을 공모한다. 기간은 6월 10일부터 18일까지이며 분야는 거리극을 비롯해 무용, 융복합 예술, 참여형 공연 등이다.

노희용 재단 대표는 "올해 프린지페스티벌 주제와 슬로건은 무심히 지나치다 어쩌다 마주친 거리 예술을 통해 예술 현장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만남의 광장"은 올 가을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 주제인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일정 부분 반영해 개인을 이야기거리 예술의 하모니로 연계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작품 공모는 페스티벌 주제 또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주제를 반영하고, 지역의 서사나 장소성이 담긴 거리예술 작품이면 된다. 최종 15개 내외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최종 결과는 6월 28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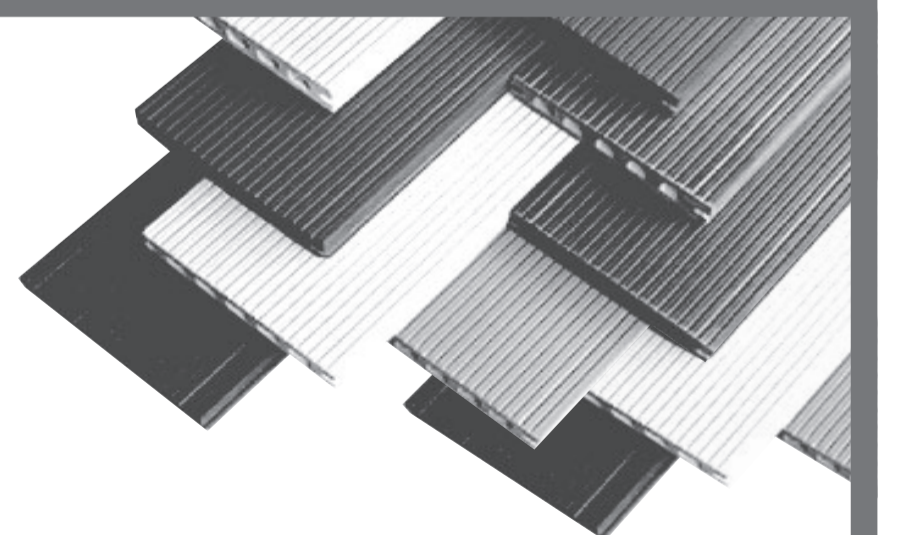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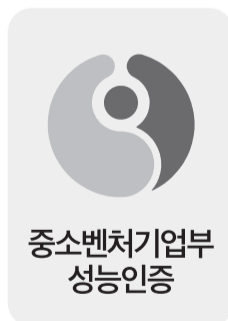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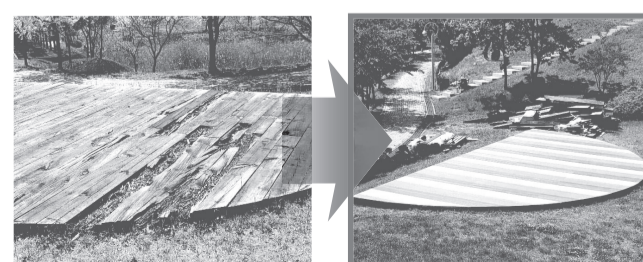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